인쇄물 上向 평준화

요즘 고교평준화 문제와 이에 수반한 대입제도를 놓고 나라 안이 시끌시끌하다.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할 위치에 있지는 못하지만 문제는 각급 고교와 고교생들이 상향 평준화보다는 하향 평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속에서 지역간, 고교간 학력이 평준화 되지 못한 가운데 이를 덮어두고 평준화제도에만 명분을 주려는 데에서 문제가 커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10여년전만 하더라도 '소문난 집'으로 통하는 인쇄사들이 더러 있었다.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 곳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품질 좋은 인쇄물을 생산하는 저력이 있었다.

지금도 그런 인쇄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쇄를 잘하는 인쇄사'라는 개념은 많이 희석되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인쇄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고급화된 원부자재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 인쇄물 생산에 필요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인쇄물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었다고 지적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이제는 인쇄물 품질이 시설보다는 인쇄경영인의 마인드와 종사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판가름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특징있고 차별화된 인쇄, 전문화를 통한 노하우의 축적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대형인쇄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정거래처의 장통인쇄물이 지난해보다 10%이상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품종 소량화 추세에 따른 인쇄물 창출도 여의치 못한 실정이고 보면 일반 오프셋인쇄물 수주경쟁이 더욱 치열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사실 일반 오프셋인쇄물에 대한 마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웬만한 거래처에서는 걸핏하면 인쇄물 원가계산을 한다고 덤벼들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쇄사의 마진까지 제시하는 사례도 있어 인쇄인들을 더욱 피곤하게 몰아가고 있다.

일본이나 유럽인쇄사 중에는 중고인쇄기를 가지고 속도는 느리지만 평균 10도 이상의 고급인쇄물을 제작, 성공한 사례가 있다.

국내 인쇄사 가운데서도 중동이나 낯선 곳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쇄물을 주문받아 고도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실력을 인정받은 곳이 있다.

국내 인쇄품질의 상향 평준화는 두손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인쇄물 수요를 창출하고 높은 국제시장의 벽을 넘으려면 다양한 테크닉과 여러 과정을 가미한 인쇄물 생산 및 종사자 모두가 장인정신을 지니고 그야말로 인쇄물에 혼을 불어 넣어야만 한다.

말이나 글로 쓰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쉽지않다. 그러나 넓고 편한 길은 없다. 좁은 길을 힘들게 통과하는 인쇄사만이 성공의 나이테를 쌓아 갈 수 있을 뿐이다. 금년 11월이 지난해 보다 심적으로 더욱 스산하게 다가오는 것은 어째서일까?

〈오세익 · 편집주간〉